



앤아버 한국학교 소식지

THE KOREAN SCHOOL OF ANN ARBOR NEWSLETTER
 www.koreanschoolaa.org, Mail: ksofaa@yahoo.com
 2355 E. Stadium Blvd. Suite 6, Ann Arbor, MI 48104
 제 76 호 2026 년 2 월 21 일 발행: 심용휴 편집: 이택성



교장 인사 말씀

올해는 앤아버 한국학교가 개교 5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미국 내 한국학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 가운데 하나인 앤아버 한국학교는, 올해도 앤아버 태판 중학교에서 재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각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며 2025-2026학년도에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성실하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주 1회 이루어지는 한국학교 수업만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학부모님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익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때로 아이들이 한국학교에 오기 싫어하거나, 한국어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꾸준히 한국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면, 어느새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한글을 자연스럽게 읽고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인 2세를 위한 정체성 교육은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 학습과 더불어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럽게 살아온 역사를 배우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느끼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소중한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앤아버 한국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보내 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사회와 한인 사회의 여러 어른들께도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RINCIPAL'S MESSAGE

This year marks the 55th anniversary of the Ann Arbor Korean School.

As one of the oldest Kore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the Ann Arbor Korean School is proud to begin the 2025–2026 academic year once again at Tappan Middle School. We warmly welcomed new students, introduced new teachers along with our homeroom teachers, and began the school year with a shared commitment from all students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with dedication and enthusiasm.

Helping students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Korean through classes held only once a week is not an easy task, especially when meeting the high expectations of parents. Nevertheless, our teachers are continuously working hard—studying, planning, and refining their instruction—to help students acquire Korean more effectively and enjoyably.

At times, parents may feel concerned when their children seem reluctant to attend Korean school or when progress appears slower than expected. During those moments, your encouragement and continued support are especially important. With patience and consistency, children often reach a point where, almost without realizing it themselves, they are able to read and write Korean fluently.

For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identity education begins with language learning. Through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along with Korean culture and history, students develop a strong sense of Korean identity. By learning about the proud history of their ancestors and experiencing traditional culture, student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roots and develop a lasting sense of pride and connection.

Our teachers, who carry the important responsibility of providing Korean language and identity education to our community's children, are also committed to continual learning and professional growth in order to fulfill their roles with excellence. We extend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parents for their ongo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and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spected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who generously support the Ann Arbor Korean School in so many ways.

설날 놀이 학습 (KOREAN NEW YEAR CELEBRATION)

1월 31일 토요일, 앤아버 한국학교에서는 구정 설을 맞아 전교생이 함께하는 설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로 전교생이 함께 부른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 노래를 시작으로, 한국의 설날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즐거운 놀이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매년 설날 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정운혁 이사님과 각 반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이 정성껏 세배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이 세뱃돈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의 설날 문화를 처음 접하는 미국인 부모님들도 신기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놀이 속에 담긴 협동심과 배려, 규칙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웃고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한국 전통 놀이가 세대를 이어 주는 살아 있는 교육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놀이가 끝난 후에는 학부모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함께 나누며, 즐겁고 의미 있었던 2026년 설날 놀이 학습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개나리반 소식

개나리반은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즐겁고 편안하게 만나는 공간입니다. 계절, 도형, 교통기관 등 친숙한 주제를 바탕으로 노래와 놀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며 호기심을 키워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배움의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진달래반 소식

힘찬 말의 해! 함께 달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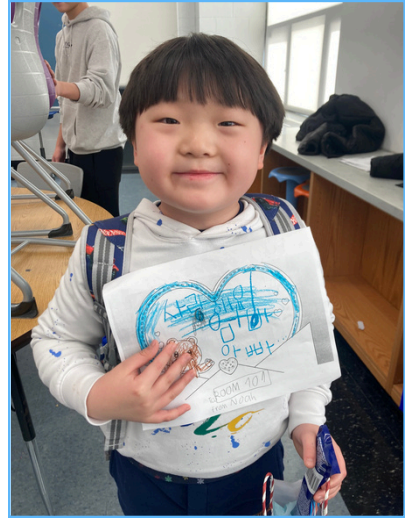
마냥 귀여운 줄만 알았던 진달래반 아이들이, 연필 잡고 글자를 배워나가며 어느새 몸도 마음도 조금씩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진달래반은 지난 1학기 동안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벌써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학기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진달래반은 이제 멋지고 씩씩한 친구들로 19명이 되었습니다.

진달래반의 하루는 지난주 숙제검사후, 1교시는 교과서를 통해 단어를 익히고 문제를 풀며 2교시에는 단어 모션 퀴즈, 노래와 율동, 나와서 발표하는 Show&Tell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3교시에 만들기 등 문화 관련된 것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야구놀이에 푹 빠진 도균, 서진, 우진이. 언제나 웃음꽃 가득한 나을, 세아, 태리, 서안이.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인 하영, 해든, 현, 로빈, 나은, 주은, 나현이. 질문을 잘하는 시우, 이든, 주원이. 그리고 새로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영민이와 제이제이.

사진을 통해 서로 다르고 개성 만점인 진달래반 친구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소개하며 2학기를 더욱 기대해봅니다! 항상 부모님들께서 숙제를 통해 함께 애써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송화반 소식

1학년 채송화반은 20명의 친구들이 모여 서로 배려하며 즐겁고 따뜻한 교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 읽기와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하루하루 한 뼘씩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백합반 소식

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백합반 친구들은 2학년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반입니다. 시작할때는 귀여운 모습이 더 많은 저학년 친구들이었지만 한학기 동안 점점 생각도 깊어지고, 부끄럼도 생기기 시작하며, 큰 언니 오빠들 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백합반이 너무 예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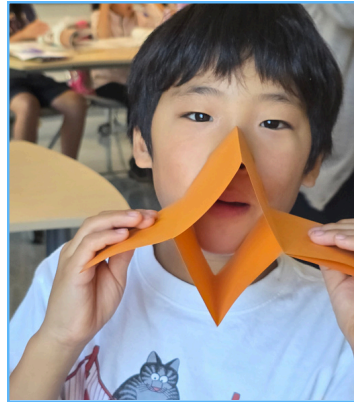
아이들 한명 한명이 가진 자신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피어나길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반에는 3명의 고등학생 봉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십니다. 아이들에게도, 봉사 선생님들 에게도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한글학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우리반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장미반 소식

형님반으로 성장한 듯하면서도 아직은 어린 아이이고 싶은 장미반을 소개합니다.

우리 반은 종이접기 'Best 창의력상' 수상에 빛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한글을 공부할 때나 한국 문화를 배울 때도 친구들과 함께 활기차고,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고 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반 소식

벌써 한 학기를 짝 채워 마무리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해바라기반이름과 어울리게 저희반 친구들은 모두 밝고 환한미소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였습니다. 모두 부모님들의 세심한 격려와 지지 덕분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바라기반은 즐거움이 중요한 키워드 였습니다. 한글게임을 통해 한글어휘들을 익히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글을 배우는것이 행복한것이라는것을 알게해주고 싶었습니다. 2학기에도 지금처럼 아이들이 한글학교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수 있도록 더욱 즐거운 수업준비하겠습니다.



무궁화반 소식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무궁화반은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중학생들의 공간입니다. 처음엔 서툴고 수줍었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점점 책임감 있고 든든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함께 배우고 나누는 소중한 반입니다.

한국학교의 멋진 선배들을 응원해주세요!



종이접기 행사 반별 작품



2025-2026 학년도 앤아버 한국학교 교직원

개나리반(pre-K)	이채운 선생님
진달래반(K)	김진영 선생님
채송화반(1)	정향주 선생님
백합반(2)	최한경 선생님
장미반(3)	배나영 선생님
해바라기(4-5)	이지나 선생님
무궁화반(중)	이택성 선생님
성인반	심용휴 선생님
교장	심용휴 선생님